

주요일간지의 장애인관련사설 내용분석

이경식*, 김광기**

*삼성의료원 재활의학과 작업치료팀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Abstract

A Content Analysis of Editorials Dealing With Issues on the Handicapped in Korean Daily Newspapers

Lee, Kyoung-Sik*, M.P.H., K.O.T.R., Kim, Kwang-Kee**,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Samsung Medical Center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Inj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describe social concerns with the handicapped reflected in editorials in Korean daily newspapers. Data were derived from the editorial articles dealing with the handicapped that appeared in two main newspapers in Korea,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 Ilbo, for the past thirty-one years from January 1, 1970, to December 31, 2000.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editorials was conducted based on three categories: types of the disabilities, contents of the articles with respect to social environment and rehabilitation for the whole person, and reporting disposition of the editorial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sul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pattern in quantitative change of editorials.

For the monthly distribution of the editorials, it was shown that the newspapers commented on the handicapped most frequently in April and December the month in which public attention was most directed to the disadvantaged. A pattern was observed in terms of temporal changes in social concerns and attitude toward the

handicapped. While social concerns with physical and social cognitive environments tended to increase, those with medical and educational rehabilitation tended to decrease.

Key Words : Handicapped, Contents analysis, Types of disabilities, Reporting attitude

I. 서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와 현대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회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이계탁, 1994). 2000년도 우리 나라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3.09%(남성 3.86%, 여성 2.34%)로 95년의 2.35%보다 0.74%포인트 높아졌으나 선진국인 미국(20.6%), 호주(18%), 독일(8.4%), 일본(4.8%)보다는 크게 낮은 편이다.

이러한 차이는 장애를 분류하는 범주가 선진국인 경우에 우리 나라 보다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것도 한가지 이유가 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수는 144만 9,496명으로 1995년의 105만 3,468명에 비하여 37.6%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순수한 증가는 25만 여명이고 그 외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 만성 중증신장병, 심장장애, 자폐증, 정신장애(뇌병변장애)등 5개 유형이 장애인 범주에 새롭게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1995년 88.1%에 비해 1.3% 포인트 증가한 89.4%를 차지하는 등 후천적 장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이러한 후천적 장애의 경우는 현대문명의 발전과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향이 높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천벌의 상징이나 운명의 탓으

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 때문에 후천적 장애가 발생하고 증가하는 추세라면 장애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본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관심을 토대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특히 후천적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활대책은 제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종합적인 재활대책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태도에 기인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일반대중에게 팽배하고 있는 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가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되려면 우선적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며 이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활발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담론의 변화가 곧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수립으로 연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대책을 모색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일간지 사설에 게재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를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요일간지 사설에 게재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관련 사설건수의 양적인 변화를 연대별 및 정권별로 기술한다.
- 2) 장애인에 관한 사설의 내용분석을 연도별 및 정권별로 기술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일간지 사설에 게재된 장애인관련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중앙일간지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일간지의 197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만 31년간 게재된 사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선택한 이유는 이들 2개 일간지가 우리 나라 일간신문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신문의 발행 부수와 역사, 중요도, 여론을 대변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분석자료는 한국언론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Kinds)에서 제공하는 각 신문사설로 이를 내용분석 하였다. 내용분석을 위해 장애인, 재활, 산재, 교통사고, 불구, 불우이웃, 소외, 보훈, 복지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였으며, 관련 신문사설을 수집한 후 문헌고찰을 통해 설정된 분석유목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였다.

1) 사설내용 분석기준

(1) 장애유형별 분류

장애유형별 분류는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분류'에 의거 장애유형을 분류하였다(부록 표1 참조).

(2) 내용 분석유목

사설내용의 분류를 위해 서지형(1994)이 제시한 내용 분석유목을 사용하였다(부록 표2, 표3 참조).

(3) 사설의 보도성향 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주요일간지의 보도성향에 대한 분석을 사설 전체적으로 볼 때 보도태도가 비판적이나, 중립적이나, 긍정적이나에 의해 판단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비판적: 사설의 방향이 부정적인 태도로 갈등적, 대결적, 항변적, 격정스런, 골치 아픈, 파괴적 내용의 단어를 사용하여 논조를 풀어간 사설은 비판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② 중립적: 사설의 방향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을 때의 태도로 보도적 해설이나 중립적 태도, 즉 신문사나 기자의 주관적 견해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도하는 기사를 뜻한다. 또 기사의 긍정적, 비판적인 견해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을 때도 중립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 ③ 긍정적: 사설의 방향이 긍정적, 고무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지지, 동조, 찬양, 격려, 인정, 선의적 제언의 태도를 보였을 때를 긍정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2) 신뢰도

신뢰도 측정은 분석대상 사설 전수를 본 연구자와 대학원에 재학중인 다른 한 분석자 간의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신뢰도는 장애유형별 분류와 내용 분석유목 그리고 사설의 보도성향에 관한 설명과 연습을 실시한 후 사설 내용에 따라 코딩한 것을

표 1. 시설내용에 따른 신뢰도계수

시설내용	신뢰도 계수
장애유형별 분류	0.82
내용 분석유목	0.79
보도성향	0.87

토대로 분석자 간의 신뢰도 계수¹⁾를 산출하였다(차배근, 1999). 그 결과 분석자간 상호 일치도가 0.79 에서 0.8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표 1).

3) 통계분석

기사의 내용이 복합적으로 있을 경우에는 분석유목에 해당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중복코딩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주요일간지의 보도성향의 내용에 관하여는 유목별로 빈도를 집계하였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그 결과를 해석에 활용하였으며, 시설제목의 위치와 시설제목에 장애관련 언급 유·무의 관련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검정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장애인관련 시설 게재건수의 분포추이

1) 연도별 기사 분포추이

내용분석에 포함된 시설의 연도별, 신문별 분포는 표 2와 같다. 시설은 지난 31년 동안 전체 174건이 있으며, 조선일보가 55.2%로 동아일보 44.8%보다 약간 많았다. 그림 1은 장애인관련 시설을 각 연도

1)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 =

$$2M / (N_1 + N_2)$$

2M : 2명의 코더들간에 일치한 코딩 건수

N₁ : 코더 1의 코딩 건수

N₂ : 코더 2의 코딩 건수

표 2. 장애인관련 시설의 연도별 추이 단위: 건수(%)

연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계
70~74	14(46.7)	16(53.3)	30(100.0)
75~79	12(28.6)	30(71.4)	42(100.0)
80~84	17(50.0)	17(50.0)	34(100.0)
85~89	7(35.0)	13(65.0)	20(100.0)
90~94	9(60.0)	6(40.0)	15(100.0)
95~00	19(57.6)	14(42.4)	33(100.0)
계	78(44.8)	96(55.2)	174(100.0)

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82년부터 94년까지가 다른 연도에 비해 게재된 시설 건수는 적은 양이었다. 1979년과 1996년에 각각 14편으로 시설수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973년과 1981년으로 각각 13편이었다. 1971년에는 장애인관련 시설을 두 신문에서 한편도 다루지 않았고, 1990년과 1999년에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각각 한편씩만을 게재하고 있었다. 두 신문을 비교하여 볼 때 70·80년대에는 조선일보가, 90년대에는 동아일보가 장애인관련 시설을 많이 다룬 것을 볼 수 있다.

2) 월별 시설 분포추이

장애인관련 시설의 월별 게재비율 분포는 표 3과 같다. 전체적으로 4월이 14.4%를 차지하여 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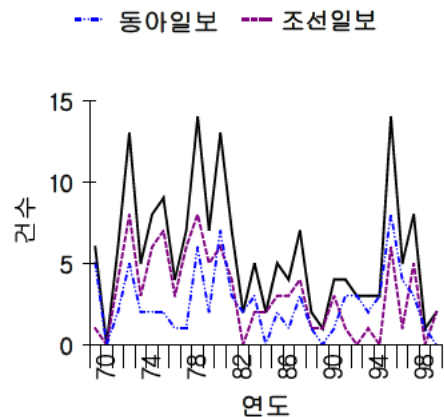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관련 시설의 연도별 추이

표 3. 장애인관련 시설의 월별 비율 분포

단위: 건수(%)

월	연 도						계
	70~74	75~79	80~84	85~89	90~94	95~00	
1월	6.7	7.1	17.6	15.0	13.3	0	9.2
2월	3.3	2.4	0	10.0	0	15.2	5.2
3월	3.3	4.8	2.9	5.0	0	6.1	4.0
4월	13.3	7.1	20.6	5.0	26.7	18.2	14.4
5월	6.7	7.1	0	0	0	6.1	4.0
6월	13.3	4.8	5.9	5.0	0	0	5.2
7월	6.7	21.4	2.9	10.0	6.7	6.1	9.8
8월	3.3	7.1	11.7	10.0	13.3	0	6.9
9월	26.7	7.1	5.9	15.0	0	9.1	10.9
10월	6.7	9.5	8.8	15.0	6.7	6.1	8.6
11월	6.7	9.5	11.8	10.0	13.3	9.2	9.8
12월	3.3	11.9	11.8	0	20.0	24.2	1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높았으며 12월이 12.1%, 9월이 10.9%순으로 나타났다. 3월과 5월에는 각각 5%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로 볼 때 70~74년에는 9월이 26.7%, 75~79년에는 7월이 21.4%로 가장 많았다. 80~84년에는 4월이 20.6%, 85~89년에는 편수에 있어서 월별 큰 차이가 없었고, 90~94년에는 4월이 26.7%, 95~2000년에는 12월이 24.2%로 가장 많았다. 반면에 8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한평도 개제되지 않은 달이 매년 두 달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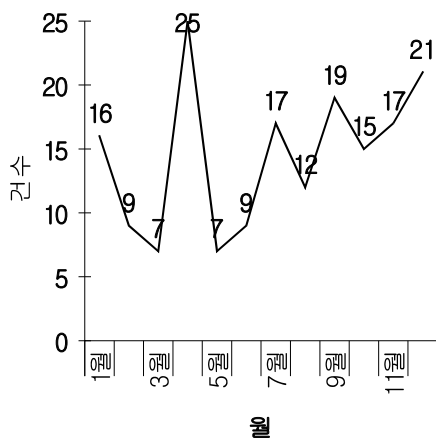


그림 2. 장애인관련 시설의 월별 개제 건수 분포

그림 2는 월별 장애인관련 시설을 개제건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다. 월별로 뚜렷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장애인에 대한 정권별 관심을 파악하기 위해 정권별 장애인 관련 시설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정권별 장애인 관련 시설의 월별 분포 단위: %

월	정 권					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1월	6.9	20.0	5.6	3.6	0.0	9.2
2월	2.8	2.2	5.6	14.3	9.1	5.2
3월	4.2	4.4	0.0	7.1	0.0	4.0
4월	9.7	17.8	11.1	25.0	9.1	14.4
5월	6.9	0.0	0.0	7.1	0.0	4.0
6월	8.3	11.1	0.0	0.0	0.0	5.2
7월	15.3	2.2	11.1	7.1	9.1	9.8
8월	5.6	11.1	11.1	3.6	0.0	6.9
9월	15.3	8.0	5.6	10.7	0.0	10.9
10월	8.3	6.7	22.2	7.1	0.0	8.6
11월	8.3	11.1	16.7	3.6	18.2	9.8
12월	8.3	8.0	11.1	10.7	54.5	12.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연대별 장애유형 대분류 분포

단위: 건수(%)

연도	신체적장애	정신적장애	기타(포괄적장애)	계
70~74	12(30.8)	10(25.6)	17(43.6)	39(100.0)
75~79	46(46.9)	27(27.6)	25(25.5)	98(100.0)
80~84	31(49.2)	14(22.2)	18(28.6)	63(100.0)
85~89	23(56.1)	11(26.8)	7(17.1)	41(100.0)
90~94	4(20.0)	5(25.0)	11(55.0)	20(100.0)
95~00	15(34.1)	1(2.3)	28(63.3)	44(100.0)
계	131(42.9)	68(22.3)	106(34.8)	305(100.0)

* 중복 코딩

표 4에 의하면, 박정희 정권 기간에는 7월과 9월이 각각 15.3%로 가장 많았으며, 전두환 정권 기간에는 1월이 2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월이 17.8%이었다. 노태우 정권 기간에는 10월이 22.2%, 김영삼 정권 기간에는 4월이 25.0% 그리고 김대중 정권 기간에는 12월이 54.5%로 가장 많았으며, 단 한번도 사설이 게재되지 않았던 월도 많았다.

2. 사설의 분석유목별 변화

1) 장애유형별 경향분석

전체사설 총 174편의 내용에 표현된 다양한 장애에 대한 표현을 장애유형별 분류에 따라 중복 코딩하여 대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전체적으로 신체적 장애에 대한 표현이 42.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으며, 기타 사항에 포함된 포괄적 장애에 대한 표현 유형이 34.8%, 정신적 장애 표현이 22.3%를 차지하였다.

장애에 대한 일반적 관심이 구체화된 것을 알아보기 위해 기타 유형을 제외하고 분류한 분포 사항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전체적으로는 신체적 장애 표현이 65.8%로 정신적 장애 표현 34.2%보다 많았는데, 90~94년에는 정신적 장애 표현이 55.6%로

신체적 장애 표현 44.4%보다 많았다.

정권별 구체적 장애유형의 대분류 분포는 다음 표 7과 같다. 전반적으로 신체적 장애 표현이 정신적 장애 표현보다 많았는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

표 6. 연대별 구체적 장애유형의 대분류 분포

단위: 건수(%)

연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계
70~74	12(54.5)	10(45.5)	22(100.0)
75~79	46(63.0)	27(37.0)	73(100.0)
80~84	31(68.9)	14(31.1)	45(100.0)
85~89	23(67.6)	11(32.4)	34(100.0)
90~94	4(44.4)	5(55.6)	9(100.0)
95~00	15(93.8)	1(6.2)	16(100.0)
계	131(65.8)	68(34.2)	199(100.0)

* 중복코딩, 기타유형 제외

표 7. 정권별 구체적 장애유형의 대분류 분포

단위: 건수(%)

정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계
박정희	58(61.1)	37(38.9)	95(100.0)
전두환	46(66.7)	23(33.3)	69(100.0)
노태우	11(64.7)	6(35.3)	17(100.0)
김영삼	11(84.6)	2(15.4)	13(100.0)
김대중	5(100.0)	0(0.0)	5(100.0)
계	131(65.8)	68(34.2)	199(100.0)

권 기간에는 큰 변화가 없다가 김영삼 정권 기간에 들어서며 신체적 장애 표현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정신적 장애 표현은 상대적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서는 모든 장애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신체적 장애 표현만 있을 뿐 정신적 장애 표현은 전무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장애유형별 표현분포는 다음 표 8과 같다. 기타 항목을 제외한 장애유형별 표현분포에서는 지체장애가 3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신지체 17.1%, 정신장애 15.1%, 시각장애 12.1% 순으로 많았다.

연대별 장애유형 표현분포는 다음 표 9에 제시하

표 8. 장애유형별 표현분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표현빈도	백분율	백분율*
신체적 장애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71	23.3	35.7
		뇌병변장애	8	2.6	4.9
		시각장애	24	7.9	12.1
		청각장애	17	5.6	8.5
		언어장애	9	3.0	4.5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1	0.3	0.5
		심장장애	1	0.3	0.5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34	11.1	17.1
	정신장애		30	9.8	15.1
	발달장애(자폐)		4	1.3	2.0
기타(포괄적 장애표현)			106	34.8	-
계			305	305(100.0)	199(100.0)

* 기타항목제외

표 9. 연대별 장애유형 표현분포

단위: %

장애		연 도						계
		70~74	75~79	80~84	85~89	90~94	95~00	
신체적 장애	지체장애	40.9	27.4	46.7	26.5	33.3	56.3	35.7
	뇌병변장애	0.0	4.1	4.4	5.9	11.1	0.0	4.0
	시각장애	4.5	13.7	6.7	17.6	0.0	25.0	12.1
	청각장애	4.5	9.6	4.4	17.6	0.0	6.3	8.5
	언어장애	4.5	5.5	6.7	0.0	0.0	6.3	4.5
	신장장애	0.0	1.4	0.0	0.0	0.0	0.0	0.5
	심장장애	0.0	1.4	0.0	0.0	0.0	0.0	0.5
정신적 장애	정신지체	31.8	19.2	11.1	8.8	44.4	6.3	17.1
	정신장애	9.1	15.1	20.0	20.6	11.1	0.0	15.1
	발달장애	4.5	2.3	0.0	2.9	0.0	0.0	2.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중복코딩, 기타(포괄장애표현)제외

었다. 대부분의 경우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순으로 게재 사실이 많았다. 85~89년에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순으로 많았으며, 90~94년에는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신장애 순으로, 95~2000년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순이었다. 표현분포의 연대별 변화는 전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2) 유목별 추세

연대별 내용유목별 추이는 표 10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환경 개선이 5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장애인 전인재활 29%, 행사 12.2%순으로 차지하였다. 이들 유목의 연대별 추이를 보면, 사회환경 개선에 관한 유목은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장애인 전인재활은 90년대 후반이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정권별 장애인관련 사설의 내용분석 추이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모든 정권에서 사회환경 개선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았고, 장애인 전인 재활, 행사 순이었다. 정권별 사설의 내용분석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정권에서 사회환경 개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 전인재활은 감소하는 추세였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김대중 정권의 경우는 다른 정권에 비하여 사회환경 개선에 관한 비율이 다른 유목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전체사설의 유목별 및 세부항목별 빈도 현황은 다음 표 12와 같다. 전체사설의 유목별 표현분포를 살펴보면 제도적 환경 유목이 27.4%로 가장 많이 보였고, 사회 인식적 환경 유목이 16.5%, 물리적 환경이 14.9%순으로 나타났다. 사회 심리적 재활

표 10. 연대별 내용 유목별 추이

단위: 건수(%)

연도	사회환경개선	장애인전인 재활	행사	계
70~74	28(57.1)	17(34.7)	4(8.2)	49(100.0)
75~79	57(51.8)	38(34.5)	15(13.6)	110(100.0)
80~84	70(56.9)	38(30.9)	15(12.2)	123(100.0)
85~89	32(54.2)	14(23.8)	13(22.0)	59(100.0)
90~94	21(80.8)	4(15.4)	1(3.8)	26(100.0)
95~00	52(69.3)	17(22.7)	6(8.0)	75(100.0)
계	260(58.8)	128(29.0)	54(12.2)	442(100.0)

* 중복코딩

표 11. 정권별 내용분석 추이

단위: 건수(%)

정권	사회환경개선	장애인전인 재활	행사	계
박정희	85(53.5)	55(34.6)	19(11.9)	159(100.0)
전두환	90(57.3)	45(28.7)	22(14.0)	157(100.0)
노태우	26(60.5)	10(23.2)	7(16.3)	43(100.0)
김영삼	41(67.2)	16(26.2)	4(6.6)	61(100.0)
김대중	18(81.8)	2(9.1)	2(9.1)	22(100.0)
계	260(58.8)	128(29.0)	54(12.2)	442(100.0)

표 12. 유목 및 세부항목별 빈도

유목	표현빈도	백분율	세부항목	표현빈도	백분율
제도적 환경	121	27.4	장애인 관련 법안	51	10.9
			복지대책 안	53	11.3
			입시 제도	17	3.6
물리적 환경	66	14.9	수용 및 보호시설	32	6.9
			편의 및 공학시설	28	6.0
			시설 종사자	6	1.3
사회인식적 환경	73	16.5	장애인에 대한 기본이해	54	11.6
			홍보 및 계몽	14	3.0
			가족 부모 교육	5	1.1
의료적 재활	38	8.6	보장구	2	0.4
			영역 및 전문인	15	3.2
			장애예방 및 대책	21	4.5
교육적 재활	38	8.6	특수학급 및 학교	31	6.6
			조기교육	2	0.4
			통합교육	5	1.1
직업적 재활	43	9.7	직업재활기관	9	1.9
			직종 및 직업	19	4.1
			고용 및 작업환경	15	3.2
사회심리적 재활	9	2.0	사회 적응 훈련	5	1.1
			장애극복 미담	1	0.2
			장애인 결혼	3	0.6
행사	54	12.2	예·체능 행사	7	1.5
			기념행사	25	5.4
			세미나 및 회의	11	2.4
			장애자 올림픽	11	2.4
기타				25	5.4
합계	442	100.0		467	100.0

* 중복코딩

유목이 31년간 2%로 신문의 관심이 가장 적은 부분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에서는 사회 인식적 환경 유목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본이해 항목이 11.6%로 가장 많았고, 제도적 환경 유목에서 복지대책안 항목이 11.3%,

장애인 관련법안 항목이 10.9%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장애인 전인재활에 관련한 유목의 세부항목인 장애극복 미담 항목은 0.2%로 가장 낮았고, 조기교육·보장구 항목은 0.4%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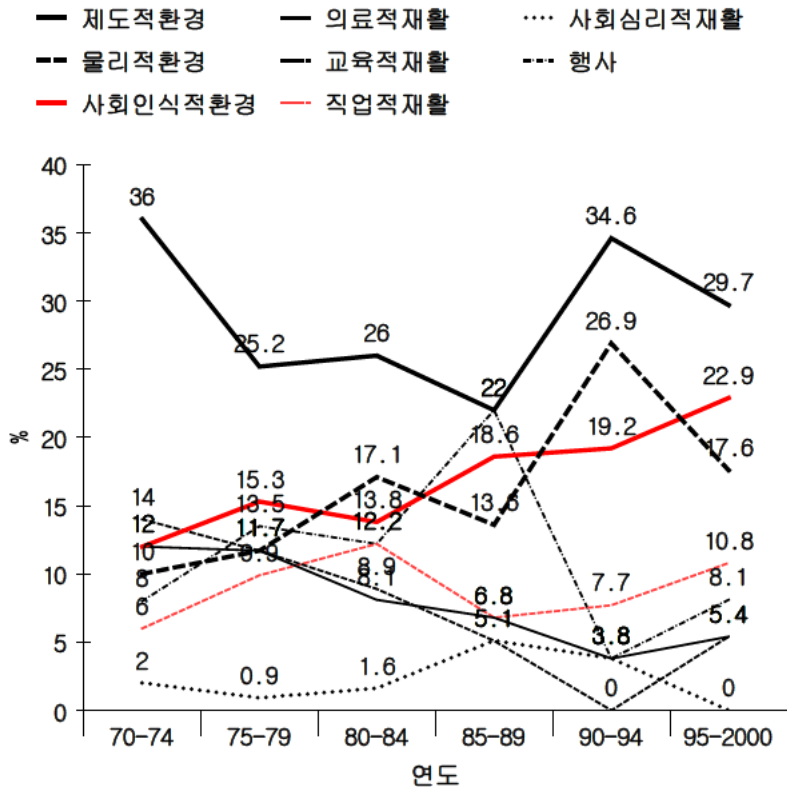


그림 3. 연도에 따른 유목별 표현 분포

연도에 따른 유목별 표현분포는 그림 3과 같다. 연도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인식적 환경이었으며,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의료적 재활과 교육적 재활이었다.

3. 사설의 중요도 추세분석

사설이 몇 번째 사설로 다루어졌으며 그 사설제목에 장애표현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관련성은 표 13과 같다. 사설제목에 장애관련 표현을 한 경

표 13. 사설제목에 장애관련표현 유무에 따른 사설의 위치 차이

단위: 건수(%)

		사설의 위치		계
		첫 번째로 다룸	두 번째 이상에서 다룸	
사설제목에	유	22(30.1)	51(69.9)	73(100.0)
장애표현	무	45(44.6)	56(55.4)	101(100.0)
계		67(38.5)	107(61.5)	174(100.0)

$\chi^2=3.720$ df=1* p < 0.05

표 14. 연대별 사설의 보도성향 추이

단위: 건수(%)

연도	논조태도			계
	비판적	중립적	긍정적	
70~74	3(10.0)	24(80.0)	3(10.0)	30(100.0)
75~79	15(35.7)	22(52.4)	5(11.9)	42(100.0)
80~84	13(38.2)	20(58.8)	1(3.0)	34(100.0)
85~89	9(45.0)	9(45.0)	2(10.0)	20(100.0)
90~94	5(33.3)	9(60.0)	1(6.7)	15(100.0)
95~00	17(51.5)	15(45.5)	1(3.0)	33(100.0)
계	62(35.6)	99(56.9)	13(7.5)	174(100.0)

표 15. 정권별 사설 보도성향

단위: 건수(%)

정권	논조태도			계
	비판적	중립적	긍정적	
박정희	18(25.0)	46(63.9)	8(11.1)	72(100.0)
전두환	19(42.2)	24(53.3)	2(4.5)	45(100.0)
노태우	6(33.3)	11(61.1)	1(5.6)	18(100.0)
김영삼	12(42.9)	15(53.6)	1(3.6)	28(100.0)
김대중	7(63.6)	3(27.3)	1(9.1)	11(100.0)
계	62(35.6)	99(56.9)	13(7.5)	174(100.0)

우가 73건(42%)이었고, 장애관련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가 101건(58%)이었다. 사설제목에 장애관련 표현 유무와 상관없이 첫 번째로 사설이 다루어진 경우는 38.5%이었고, 두 번째 혹은 그 뒤로 다루어진 경우는 61.5%이었다. 사설제목에 장애관련 표현 유무와 사설위치에 대한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사설제목에 장애관련 표현을 하였을 경우 사설의 위치에 있어서 두 번째 혹은 그 뒤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대별 장애인관련 사설의 보도성향 추이는 표 14와 같다. 장애인관련 사설의 보도성향에 있어서는 중립적 태도가 56.9%, 비판적 태도가 35.6% 그리고 긍정적 태도가 7.5% 순이었다. 70~74년에 강한 중립적 성향(80%)을 보이다가 차츰 중립적 성향은 감소하였고, 비판적 성향이 증가하여 85

~89년에는 중립적, 비판적 성향이 각각 45%씩 같게 되었고 90~94년에는 다시 그 차이가 벌어지다가 95~2000년에 이르러서는 비판적 성향이 중립적 성향보다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권별 장애인관련 사설의 보도성향 추이는 표 15와 같다. 정권별 장애인관련 사설의 보도성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중립적 태도가 56.9%로 가장 많았고, 비판적 태도가 35.6%, 긍정적 태도가 7.5% 순이었다.

표 1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정권별로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도 성향에 있어서는 중립적, 비판적, 긍정적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정권별로 증가·감소를 반복하다가 김대중 정권에 와서는 비판적 태도가 63.6%, 중립적 태도가 27.3%로 그 동안의 중립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의 순위가 뒤바뀌어,

긍정적 태도가 9.1%를 차지하였다.

IV. 고 찰

우리 나라 신문의 장애인관련 사설의 취급경향을 보면, 동아일보의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간 사설 수는 5,907건이었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최근 10년간 사설 수는 14,152건이었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 31년간 쓰여진 사설은 대략 적게 잡아도 한 신문사당 1년에 630여 편으로 두 신문사에서 31년간이면 39,000건은 될 것으로 추산하였을 때 전체사설 39,000건 중 장애인관련 사설은 174건으로 전체사설의 0.4%에 그쳤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언론이 장애인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가 하는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하겠다.

총 장애인관련 사설의 게재 빈도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 41.4%, 1980년대에 31.0%, 1990년대에 27.6%로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 및 보건의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장애인관련 사설의 취급 빈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이는 박희호(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서지형(1994)의 연구에서는 장애인관련 기사의 분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신문기사의 분포와 비례하여 신문사설의 게재빈도가 반듯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문사설이 장애인관련 사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긴 하지만, 충분히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었다.

장애인관련 사설의 연도별 게재추이를 보면 '세계아동의 해'인 1979년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발생을 많이 다루었던 1996년에 각각 14편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아·태지역 사회복지대회'가 개최되고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된 1973년, '세계장애자의 해'인 동시에 국내 '장애인의 날'이 제정된 1981년에는 각각 13편을 차지하였다. 연도에 따라 취급빈도의 주기적인 변동양상을 보이는 것은 김승

익(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는데, 이는 신문사설이 시사적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취급빈도가 달라졌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장애인보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나라 신문은 어떠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꾸준히 그 사건에 대해 추적하여 대책, 원인, 피해, 주장 등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신문사마다 경쟁이라도 하듯, 일제히 보도했다가 얼마 못 가서 급격히 사라지는 스트레이트 단발보도로 처리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관련 사설을 좀더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월별 취급경향을 보면, 전체 장애인관련 사설의 14.4%가 '장애인의 날'이 있는 4월에, 12.1%가 한해를 되돌아보며 불우이웃 돕기 캠페인을 벌이는 12월에 게재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논의동기가 된 행위가 어느 달에 편중되었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장애유형별 대분류 분포에 있어서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표현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기타로 분류된 표현 유형이 많았으며 그리고 정신적 장애에 대한 표현 순으로 나타났는데, 기타로 분류된 유형이 많은 이유는 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장애' 혹은 '심신장애' 등으로 표현하여 기타(포괄적 장애 표현)로 표시된 유형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정신적 장애 표현보다 신체적 장애 표현이 많이 다루어진 것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유형별 분포와 일치하였고, 장애유형별 표현빈도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순으로 나타난 장애유형별 분포와 본 연구간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유관사건 발생으로 사설을 취급하게 된 동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내용분석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사회환경 개선이 58.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장애인 전인생활이 29%, 행사가 12.2%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지형(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내용분석 추이에 있어서는 모든 정권에서 사회환경 개선(물리적 환경, 사회인식적 환경)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전인재활(의료적 재활, 교육적 재활)은 감소하는 추세이었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큰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전체사설의 유목별 표현분포를 살펴보면, 제도적 환경 유목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사회 인식적 환경 유목, 물리적 환경 유목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는데, 서지형(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사회심리적 재활 유목이 31년간 9건으로 가장 신문의 관심이 적은 부분으로 나타난 점은 차이가 있었다.

사설 제목에 장애인 관련 표현을 한 경우가 42%이었고, 장애인 관련 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가 58%이었다. 사설 제목에 장애인 관련 유무와 관계없이 첫 번째로 사설이 다루어진 경우는 38.5%이었고, 나머지 두 번째 혹은 그 뒤로 다루어진 경우는 61.5%이었다.

사설 제목에 장애인 표현 유무와 사설위치에 대한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사설 제목에 장애인 표현을 하였을 경우 사설의 위치에 있어서 두 번째 혹은 그 뒤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장애인 관련 사설의 보도성향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중립적 56.9%, 비판적 35.6% 그리고 긍정적 7.5% 순으로 중립적 성향에 사설의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정부나 사회에 대한 기대가 많았기 때문으로, 이는 김승익(1980)의 연구에서도 중립적 성향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정권별 장애인 관련 사설의 보도성향에서 김대중 정권기간 중립적 태도와 비판적 태도 순위가 뒤바뀌게 되어 비판적 태도가 가장 많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부나 사회의 장애인 관련 부문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미약하고 소극적이었음을 보여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V. 결 론

우리 나라 주요일간지에 게재되었던 장애인 관련 사설의 내용을 분석하여 이 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의 추세를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197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31년간에 걸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게재되었던 사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조사 기간 중 게재된 장애인 관련 사설은 174편이었으며, 전체사설 39,000건 가운데 0.4%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에 41.4%, 1980년대에 31%, 1990년대에 27.6%이었다. 신문별로는 동아일보가 44.8%, 조선일보가 55.2%를 다루었고, 게재시기의 월별 분포를 보면 4월, 9월, 12월에 비교적 많았다.
- 2) 각 신문에 언급된 장애인 유형별 분류에서는 정신적 장애 보다 신체적 장애를 많이 다루었고 장애인 유형별 표현빈도는 지체장애, 정신장애, 정신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순이었다.
- 3) 각 신문 사설내용 분류에서는 사회환경 개선, 장애인 전인재활, 행사순으로 사설 내용이 게재되었고, 유목별 표현빈도의 경우 제도적 환경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사회·인식적 환경, 물리적 환경 순이었다. 가장 관심을 갖지 못한 부문은 사회 심리적 재활 부문이었다.
- 4) 장애인 관련 사설을 첫 번째 사설로 다룬 경우는 38.5%이었고, 그 이외의 경우 61.5%는 두 번째 혹은 그 이후 순서에서 다루었다. 사설 제목에 장애인 관련 표현 유무와 사설의 위치에 대한 차이 검증에 있어서는 사설 제목에 장애인 관련 표현을 하였을 경우에 사설의 위치가 두 번째 혹은 그 뒤로 다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 5) 연대별 장애인 관련 사설의 보도성향은 중립적, 비판적, 긍정적 순이었다.

장애인 문제를 논제로 하고 있는 사설이 장애인

문제이외의 외적 현상에만 치중할 뿐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또한 전체사회의 태도인 것이다. 신문, 특히 사설란은 그 시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지식인들이 공정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진보적이며, 보다 민주적인 사회로의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 현재를 진단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때, 유독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만든 답보상태라는 사실은 실망과 함께 의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문사설은 이러한 제 문제점의 개선과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사회진보와 공존공영의 복지사회를 위해 논조를 달리하여 장애인 문제를 다룸에 있어 그 전통의 잔존자가 아니라 선구자적 입장을 분명히 해 줄 것을 바라는 바이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의 변화를 분석하려는 연구목적에 달성하려고 할 때 신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추후 다른 인쇄매체나 TV 기타 전파매체 등을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2개 신문에만 국한시켜 살펴보았기 때문에 신문 전체의 관점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많은 종류의 신문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설만을 다루었는데 신문 기사를 함께 연구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신문의 보도적 기능과 지도적 기능을 살펴볼 수 있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태도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좋은 연구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분석 시기를 1970년 이후로 설정하였었는데 분석기간을 좀더 길게 본다면 그 이전의 발전과정 및 경향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박희호. 신문의 보건기사 보도에 관한 내용분석.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서지형. 주요 일간신문의 장애인 관련기사 분석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 이계탁. 복지행정학강의. 나남출판. 1994;53.
- 차배근. 사회과학 연구방법. 세영사. 1999;4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01.

<부 록>

표 1. 내용분석에 사용된 장애유형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1) 신체적 장애	1)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1.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2.뇌병변장애	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3.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4.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5.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2) 내부기관의 장애	6.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7.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2) 정신적 장애	3) 8.정신지체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4) 9.정신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5) 10.발달장애(자폐증)		소아자폐등 자폐성장애

표 2. 내용분석에 사용된 분석유목

	유목	세부항목
사회환경개선	1) 제도적 환경	1. 장애인 관련 법안 2. 복지 대책안 3. 입시제도
	2) 물리적 환경	4. 수용 및 보호시설 5. 편의 공학시설 6. 시설 종사자
	3) 사회 인식적 환경	7.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8. 홍보 및 계몽 9. 가족, 부모교육
장애인 전인 재활	4) 의료적 재활	10. 보장구 11. 영역 및 전문인 12. 장애예방 및 대책
	5) 교육적 재활	13.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14. 조기교육 15. 통합교육
	6) 직업적 재활	16. 직업 재활 기관 17. 직종 및 취업 18. 고용 및 작업 환경
	7) 사회 심리적 재활	19. 사회 적응 훈련 20. 장애 극복 미담 21. 장애인 결혼
	8) 행 사	22. 예체능 행사 23. 기념 행사 24. 세미나 및 회의 25. 장애자올림픽
	9) 기 타	위 8 유목에 포함되지 않는 장애인 관련기사

표 3. 각 분석유목에 따른 세부항목별 정의

세부항목		정의
(1) 제도적 환경	1. 장애인 법안	정부와 문교부의 제도마련 계획, 촉구에 관한 것과 마련된 법안의 실효성과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2. 복지대책 안	법안 이외에 장애인 복지 대책 안의 마련 및 촉구 기사를 포함한다.
	3. 입시 제도	상급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과 그에 따른 특례법, 각종 령에 관한 기사와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기사를 포함한다.
(2) 물리적 환경	4. 수용 및 보호시설	수용 및 보호시설의 개, 증축에 관한 내용과 운영, 종사자들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5. 편의 시설 및 공학시설	건축구조에 관련된 것, 장애인용 공중전화, 화장실, 휠체어 전용 도로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TV자막이나 TV수화방송, 점자컴퓨터, 보조 로켓 개발 등 과 기술개발 촉구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6. 시설 종사자	장애인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들의 문제점, 수급현황, 처우문제에 대한 기사를 포함한다.
(3) 사회·인식적 환경	7.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	장애인 정의 문제, 발생률, 장애인구에 대한 기사와 정상인의 관점이나 장애인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적 인식에 관해 쓴 기사를 포함한다.
	8. 홍보 및 계몽	장애인 TV프로그램, 지역주민에 대한 계몽, 각종 캠페인, 후원자 결연 사업 등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9. 부모교육	장애자녀 수용 및 부모역할에 관한 것과 협회나 기관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기사를 포함한다.
	10. 보장구	휠체어 및 의지 보장구 제작에 관한 기사와 보장구 산업 및 제작사의 문제점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4) 의료적 재활	11. 영역 및 전문인	전문요원 양성 및 수급현황에 관한 것과 치료영역에 대해 다룬 기사를 포함한다.
	12. 장애예방 및 대책	장애의 조기 발견에 관한 것과, 모자보건 사업 등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5) 교육적 재활	1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립, 설치에 관한 것과 특수교사, 수업료 현황, 교육내용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14. 조기 교육	학령기 이전의 교육은 모두 포함하고 조기 교육의 필요성과 수급현황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15. 통합 교육	통합 교육 촉구 기사와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기사를 모두 포함한다.

표 3. 각 분석유목에 따른 세부항목별 정의(계속)

세부항목		정의
(6) 직업적 재활	16. 직업재활기관	직업 재활기관의 설립에 관한 것과 교육비, 운영실태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17. 직종 및 취업	장애인에 맞는 직종소개와 직종개발 및 취업 현황에 관한 것과 취업 문제점, 대책에 관해 다룬 기사를 포함한다.
	18. 고용 및 작업환경	장애인의 고용조건 및 현황과 근무조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7) 사회 심리적 재활	19. 장애극복미담	각종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여러 사례들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20. 장애인 결혼	장애인 결혼 상담 및 주선, 찬 반론, 결혼성공 사례 등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21. 사회적응훈련	재활 캠프와 심성개발, 특별활동 등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8) 행사	22. 예. 체능행사	장애인 대상의 전국체전, 체육대회, 국제대회 출전 및 장애자 올림픽 대회 기사를 포함한다.
	23. 기념 행사	입학, 졸업행사, 기관개관행사, 소아마비 어린이의 날, 장애인의 날 행사 기사를 포함한다.
	24. 세미나 및 회의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내, 국제 회의 및 심포지움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
	25. 장애자 올림픽	장애자 올림픽 및 여러 국제대회에 관한 기사를 포함한다.